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성공은 한국어 교육 내실화에서

김중섭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국제한국어교육학회장

1. 서론

필자가 속해 있는 경희대학교가 작년 5월, 개교 60주년을 맞았다. 그래서 개교기념일을 전후해서부터 연말까지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졌다. 대학본부를 비롯해 단과대학, 학부, 학과 주최의 다양한 행사들이 많았는데, 덕분에 오랜만에 모교를 찾은 동문들과 반갑게 인사할 기회가 있었다. 동문들은 하나같이 캠퍼스가 많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물으니 캠퍼스 곳곳에서 외국인을 흔히 볼 수 있어서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야말로 대학의 국제화를 피부로 느꼈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제 대학가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마주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6만 4천 명 가량 된다.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Study Korea'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2005년과 비교해 보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그 중 대다수가 서울과 수도권에 모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가 결코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표 1.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학생 수(명)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 4. 1)

필자는 1980년대부터 대학의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했고, 또 1993년부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해오고 있다. 그런 까닭에 최근의 변화를 보며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필자가 처음 한국어 교육을 시작할 때만 해도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의 외국인 학생은 고작 2명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매년 세계 60개국 4,800여 명의 재외동포와 외국인 학생들이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을 찾고 있다. 실로 비약적인 성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한국어 교육의 체계와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 학생의 비율이 높은 점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2009년 1학기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의 외국인

학생 가운데 중국 학생의 비율은 약 42%이다. 나머지는 일본 21%,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15%, 기타 국가 3%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2008년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특정 국가와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로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70%가 중국 출신이다. 또한 중국을 포함해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이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나머지 7%가 북미, 유럽, 아프리카, 남미 대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오세아니아 지역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수치는 그간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이 특정 국가와 특정 대륙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 외국인 유학생 출신 지역별 현황

국가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미국	대만	기타	계
학생 수(명)	44,746	3,324	2,022	1,817	1,481	1,158	9,404	63,952
비율(%)	70	5	3	3	2	2	15	100

표 3.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아시아	북미	유럽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합계
학생 수(명)	59,375	2,165	1,559	397	278	178	63,952
비율(%)	93	3	2	1	1	-	10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 4, 1)

그렇다면 이렇게 외국 유학생이 특정 국가와 지역에 편중된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또 외국인 유학생과 각 대

학이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할 대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 본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동기를 보면 예전에는 교환학생과 정부 초청 장학생처럼 대학 및 국가 간 교류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개인적 동기를 가진 학생들이 더 많다. 개인적 동기란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와 한류로 인해 한국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국적 별로는 첫 번째 경우 일본인 학생이 많고, 두 번째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학생, 세 번째는 중국인 학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학습동기에 따라 학업 성취도 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에 관한 실증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개인적 동기로 한국어를 찾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자비 유학생이라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이들이야말로 우리나라 교육 서비스 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과 내실 있는 운용이 더욱 요구된다. 이들을 붙잡지 못하면 교육 서비스 선진화라는 목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공산이 크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중국인 유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중국 내 대학 입학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대학 입학 정원은 전체 고교 졸업생의 30%에 머문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본국에서 험난한 입시과정을 치르는 대신 한국에서 비교적 손쉽게 대학에 가는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게다가 자녀를 하나만 둔 중국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자식을 한국에 유학 보내려고 한다. 경제 성장 덕분이겠지만 중국 학부모의 교육열 역시 우리네

못지않은 듯하다.

두 번째로는 한류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중국은 한류의 시발점으로서 한국 대중문화 애호층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자신이 동경하는 배우나 가수를 만나기 위해, 또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는 예가 적지 않았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경향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한류의 인기가 주춤하면서 한류 때문에 한국어를 찾는 유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대신 우리나라를 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은 아직까지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를 더 선호한다고 한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우리보다 일본이 더 인기가 있다. 그런데 경제적 여건을 비롯한 기타 사정 상 그곳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차선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학생들의 학업 능력은 높은 편이지만 자신이 본래 희망하던 곳이 아니라서 유학 초기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중국인 유학생 수가 지금처럼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다른 국가, 다른 지역은 비슷한 유인이 없었기 때문에 증가세가 둔하고 전체 유학생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중국인 유학생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에서도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중국 대학에서 자국 학생들을 거의 다 수용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중국인 유학생에 관한 정책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는 한류의 영향력이 미미한 대신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한국학, 동아시아 지역학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

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공략할 때는 그러한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는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고, 해외 한국학 센터와 한국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다행스럽게 우리 정부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유학생 유치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200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0.7%로 OECD 국가 평균인 9.6%에 훨씬 못 미친다. 정부는 이 점을 감안해 2012년까지 국내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그리고 각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Global Korea Scholarship(GKS)'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우수 학생 및 현직 리더그룹을 대상으로 학위과정, 단기 교환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우리나라의 교육 서비스를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개도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ODA 등과 연계한 별도의 방안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 국가 간 교육약정 체결을 통해 실질적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유학박람회 비롯한 한국 문화 행사, 관광 홍보, 취업 박람회 등과 유학생 유치를 연계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필자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대학들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우리 대학에 중국인 유학생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들 학생 중 대부분이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는 점도 이야기했다. 서울 소재 대학들은 좀 나은 편이지만 지방 대학의 경우는 90% 이상, 심지어 외국인 학생 모두가 중국인인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들 학생의 학업능력이나 한국어 수준이

대학 수업을 따라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학본부에서는 국제화 지표를 높이거나 모자란 정원을 채우기 위해 중국인 학생을 더 많이 뽑아야 하는 입장이고, 직접 수업과 학생 지도를 담당하는 교수들은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어 실력이 낮은 학생들 가운데서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중국인 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어 실력이 중요하다. 정부나 언론에서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대신 영어 전용 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영어 강좌의 확대 필요성에는 필자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영어가 국제 공용어이고, 또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의 교류 확대를 위해서도 영어 강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영어로 수업을 들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외국인 학생이 많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학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현실을 냉정히 따져 봤을 때 영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필자가 접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영어보다 한국어 실력이 더 나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그들을 대상으로 영어 강좌를 늘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열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학부 1, 2학년 과정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비롯해 한국어문화의 이해, 한국사회와 역사 등 대학 수학에 필수적인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강좌를 제공해야 한다. 주제의 깊이와 난이도에 따라 중국어 강의를 개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가 자국의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잘 알고 우리 입장을 지지해 줄 우군을 늘릴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유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한국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은 이 경우에도 어김없이 들어맞는다.

3. 결론

외국인 유학생의 특정 국가 편중 현상 외에도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많다. 대다수 외국인 학생들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선호한다는 점,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진학 시 경영학과나 무역학과, 관광학과 등 특정 학과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 국내 대학의 표준적인 학사 관리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는 점, 국제 교류 정보 전달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외국인을 위한 편의 시설(외국인 기숙사, 전용 상담 창구 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한 순간에 풀 수는 없겠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이들 문제를 조망하고 우선 해결 과제를 선정하여 하나씩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마다 전문 교수 인력을 충원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별도의 교육 과정을 개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어렵다. 정부나 각 대학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좀 더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러했을 때만이

신진화된 교육 강국의 미래가 단순한 장밋빛 미래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

필 / 자 / 소 / 개

김중섭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경희대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원장,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회 회장, 한·중 우호협회 이사, 한국어세계화재단 이사를 역임 하고 있다. 현재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한국어교육의 이해』, 『한국어 초, 중, 고급』, 『できる韓国語慣用表現』, 등이 있으며, “한국어 교육학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의 현황 및 과제”, “韓國人學者の日本留學に對するレディネス及びニーズの分析-日韓共同理工系學部留學生事業第9期生を中心として” 외 다수가 있다.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정, 입양인 문화이해교육의 전문가이다.

